

김정일체제의 강행적 외연 성장 전략: 제2의 천리마 대진군 운동을 중심으로

이정철 / 서울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3대혁명 붉은기 쟁취 운동'의 후퇴

1973년 북한 지도부는 3대혁명이란 공식적 명칭을 붙인 '3대혁명소조운동'¹⁾을 시작하였다. 이 운동은 이후 3대혁명소조에 대한 지도권을 장악한 김정일에 의해서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슬로건 하에 3대혁명 추진에 관한 일정한 결의 목표를 달성한 단위에 '3대혁명붉은기'를 수여하는 방식의 대중 운동²⁾으로 발전하

게 된다.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은 이제 명실공히 북한 대중 운동의 중앙에 자리하게 된 것이다.³⁾

천리마운동을 심화 발전시킨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

사실 동원체제적 대중 동원 방식이라는 점에서는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이나 천리마운동은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것이

1) 3대혁명 소조운동은 한편으로 천리마의 심화 발전으로서의 기술 혁신 운동, 다른 한편으로는 김정일의 후계체제 강화를 목표로 한 것이었다고 한다. 양호민은 후자의 측면을 강조하였고(양호민(1992), "3대혁명의 원류와 전개", 「북한 사회의 재인식 1」, 한울, p. 177), 시카이 다카시는 전자의 측면을 강조하였다(시카이 다카시, "김정일의 권력 기반- 그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1991년 4월 18일 동화연구소 개최 '북한 문제 국제학술회의' 발표 논문, p. 31).

2) 이 운동은 1975년 12월 1일 검덕광산, 2일 청산리협동농장의 궐기대회를 기원으로 한다. 김정일은 오래 전부터 이 운동의 발기를 기도하고 이 운동의 선봉 부대로 삼기 위해 1975년 7월 1일 검덕광산을 현지 지도했다고 한다(시카이 다카시, 앞의 글, p. 36).

시카이 다카시에 따르면 당시 김정일의 검덕광산 간부와의 담화의 특징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된다. ① '기술 혁명'에 관해서 당시 '사상 혁명'보다 앞서서 강조하고 있다. ② '사상 혁명'에서의 예술인 경제 선전대의 활동을 3대혁명소조에 관한 활동에 관한 것보다 먼저 언급하고 있다. ③ 노동자의 문화 급양들에 관하여 충분한 배려를 강조하고 있다. 특히 '중산'이라는 명목을 내세워 그런 것들을 화생시키고 있음을 비판하고 있다.

3) 북한에서는 1992년 헌법 개정을 통해 천리마운동을 조문에서 삭제한다. 따라서 사회주의 총노선이란 표현이 사라지고 대신 14조에서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을 비롯한 대중 운동을 힘있게 벌려..."라고 함으로써,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을 북한 대중 운동의 기본 유형으로 규정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리마 운동이 '반보수주의' 즉 '기술신비주의'에 대한 공격과 증산, 절약을 통한 외연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었다면,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의 경우 기술 혁명의 강조를 통해 이전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專에 비중을 둔 紅-專⁴⁾ 균형체제의 제도화와 내포적 성장을 시도하는 것이라는 구분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다.

실제 60년대 북한에서는 경제의 규모와 생산 발전 속도간 논쟁이 진행되고 있었고,⁵⁾ 1967년 갑산계 숙청 사건의 본질이 천리마의 외연 성장식 대중 운동에 대한 비판⁶⁾과 연관되어 있었음이 알려지고 있다. 이는 곧 3대혁명의 강조가 60년대의 천리마식 외연 성장 노선에 대한 자기 비판을 내재하고 있음을 추측하는 중요한 단서인 것이다. 이 점에서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은 천리마 운동을 한 단계 심화 발전시킨 것이라는 다음의 주장은 음미해볼 만한 것이다.

“천리마가 공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른 살아있는 노동력 부족을 기술 혁신이나 노동 조직의 합리화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부족한 농촌 노동력을 흡수함으로써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이 이 문제를 올바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3대혁명소조나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이 시도된 것이다.”⁷⁾

따라서 정치적 성격을 차치한다면 3대혁명의 강조는 60, 70년대에 존재했던 천리마식 성장에 대한 비판을 내재적으로 포섭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이 점에서 천리마 운동은 '천리마'가 헌법에 등장한 바로 그 시점(1972년)부터 3대혁명운동으로 대체되어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문제는 이렇게 오랜 산고 끝에 등장한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이 후퇴하고, '사실상 용도 폐기'되었다던 천리마운동이 전면에 등장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천리마운동을 계승 발전한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이 후퇴하

4) 專이 기술 관료 엘리트층을 의미한다면 紅은 혁명 무력 세대나 전통 당 간부들을 의미한다. 紅(Red)-專(Expert) 개념은 Schurmann의 개념을 따랐다(F. Schurmann(1968), Ideology and Organization in Communist China,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p. 162 167).

5) 김일성(1969. 3.1), “사회주의 경제의 몇가지 이론 문제에 대하여”.

6) 이종석(1995), 「조선노동당 연구」, 역사비평사, p. 305.

“박금철은 검덕광산을 현지 지도하면서 당에서 내린 목표량을 무시하고 노동자에게 ‘알맞춤하게 하라’고 지시하여 광석 생산 계획을 절반밖에 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비판되었다. …천리마 운동을 반대하여 문예총이 만들어온 인민행진곡 가사에서 당이 내놓은 구호인 ‘천리마란 말과 일당백이라는 말을 빼버렸다’고 비판받았다.”

7) 고승효(1988), 「북한 사회주의 발전 연구」, 청사, p. 273, p. 276.

고 천리마운동이 재등장한 데는 그만큼 사정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사정을 분석하는 것이야말로 김정일체제의 경제적 지향과 그 귀착점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전제가 될 것이다.

‘준마타고 구보로’ 부활한 천리마 대진군운동

고난의 행군의 마감과 김정일체제의 첫 대중 운동

‘고난의 행군’이라는 응급 조처에 의지한 채, 어떤 가치도 ‘주체의 정치체제’에 선행되지 않는다면 ‘우리식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는 1998년부터 시작되었다. ‘고난의 행군’의 승리적 마감, 김정일의 당비서 취임,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선거, 헌법 개정 등 승리자의 대축전을 향한 강행군은 곧바로 국가체제의 정비 등 정치체제의 정상화를 시작으로 해서, ‘생산의 정상화’로 나아갔다. 김정일은 이같은 생산의 정상화를 다그치는 데서 ‘대중 동원’ 식의 고전적 경제방식을 제기하였는바, 그것이 바로 김정일의 첫 대중 운동인 제2천리마 운동이었던 것이다.

4대 추진 방향

이는 처음에는 ‘천리마 속도, 강행군 속도’의 형식으로 제기되다가 1999년 들어서는 공식적으로 “제2천리마 대진군운동”으로 호칭되면서 3대혁명붉은기 쟁취운동을 대체하고 있다.⁸⁾ 이와 함께 ‘내일을 위한 오늘에 살라’, ‘가는 길 험란해도 웃으며 가자’, ‘준마타고 구보로’ 등의 슬로건이 중심 구호로 등장하면서 대중 동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지금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은 50년대 말의 ‘천리마운동’과 마찬가지로 자강도라는 모범을 창조하여 그것을 선전하고 따라 배우게 하여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다. ‘모범 창출, 모범 확산’이라는 북한의 전통적인 대중 운동 방식이 자강도의 모범에서 시작된 ‘제2의 천리마 대진군’에 그대로 실현되고 있는 것이다. 그 주된 내용은 공업 부문의 전력 증산 운동과 중공업 부문 생산 정상화, 농업 부문의 감자 농사 혁명, 토지 정리 사업으로 ‘제2의 천리마 대진군’의 4대 추진 방향이다.

8) 1998년 개정헌법 14조 역시 1992년 헌법 조항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대체’라는 표현은 무리가 있음이 사실이다. 따라서 3대혁명이 일시적으로 유보 혹은 후퇴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더욱 타당할 것이다.

제2천리마와 강행적 동원의 경제

선행 부문에 대한 '기본 건설 투자'의 '확대'

북한에서 선행 부문이라 함은 전력, 채취(석탄), 금속(기계, 철강), 철도 운수 부문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석탄과 철도 운수는 전력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력과 금속이 가장 중요한 선행 부문이라 하겠다. 이 같은 선행 부문에 대한 강조는 그것이 실질적 차원이든 상징적 차원이든, 자립이라는 대전제에 입각한 것으로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자 불변의 단골 메뉴이다.

문제는 최근 북한 지도부가 "자립적인 민족 경제의 토대가 실제적인 위력을 발휘하도록, '기본 건설 투자'를 과감하게 줄이고 인민 소비품과 수출품 생산에 주력하자"는 요구⁹⁾를 거부하고 '기본 건설 투자'를 '확대'

하자는 주장¹⁰⁾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1999년에 발표된 예산안을 보면¹¹⁾ '인민 생활을 안전, 향상시키는 인민 경제에 대한 자금 지출' 즉 인민 경제비는 전년 대비 2% 증가에 그치지만, 전력 공업 부문 15%, 농업 부문 11%, 금속·철도 운수 부문 10% 증가 등 소위 소비 펀드보다는 축적 펀드에 대한 투자가 대규모로 늘어나 있다는 점이다.

외연 성장과 사실상의 불균형 성장 전략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제2천리마 대진군 운동이 '증산과 절약'의 속도와 축적 위주 즉 강행적 외연 성장 일변도의 경제 전략에 입각해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자립 경제의 구현이라는 당위적 정책 이상의 의미를 지니는데, 소비와 축적간의 불균형을 '적극적 균형' 즉 주체의 의지로 메어나가는 사실상의 불균

9) 리준혁(1996. 3), "혁명적 경제 전략의 관철과 사회주의 경제적 진지의 공고화", 「경제연구」, pp. 14 15.

"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를 철저히 관철하여야 중공업에 의한 중공업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에 효과적으로 복무하는 중공업을 건설한 자립적 민족 경제의 토대가 실제적인 위력을 발휘하여, ...우리 당의 혁명적 경제 전략은 경제 성장 속도를 조절하며 기본 건설 투자를 대담하게 줄여 여기에서 나오는 자금과 자재, 설비들을 농촌 경리를 발전시키고 인민 소비품 생산과 수출품 생산을 늘이는 데 돌릴 것을 기본요구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하여 인민 경제의 투자 구조에서 소비재 생산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을 생산 수단 부문에 대한 투자 비중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늘어..."

10) 박두성(1996. 4), "사회적 생산의 정상화와 인민 경제 선행 부문의 발전", 「경제연구」, pp. 2 4.

"생산을 정상화하여 이에 마련된 경제 토대의 위력을 충분히 발양시켜야...이미 마련된 경제 토대의 위력을 충분히 발양시키는 데서 중요한 것은 인민 경제의 선행 부문을 확고히 앞세우는 것이다. ...인민 경제의 선행 부문을 확고히 앞세우기 위해서는 이 부문에 예견된 기본 건설 투자를 정확히 보장함으로써...농업제일주의, 경공업제일주의, 무역제일주의 방침의 철저한 관철은 인민 경제 선행 부문들에 대한 계획에 예견된 기본 건설 투자의 원만한 보장을 전제하고 있다."

11) 「조선중앙통신」(1999. 4.7).

형 성장 전략에 입각한 전략이라는 점이다.

물질적 호소와 소비의 자극을 통해 구매력을 높이는 방식은 자칫 공급 부족때문에 물가 상승과 그에 따른 불만 증대로 이어지고 궁극적으로는 차관이나 원조 등의 외부 세력에 대한 의존, 즉 상징적 자립 상태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북한 지도부는 잘 알고 있다. 이로 인해 북한 지도부가 선택할 수 있었던 길은 결국 소비 통제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생산 수단 생산 부문에의 투자 집중으로 경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방식이었을 것이다. '3대혁명제일주의' 노선이 제기되면서 나타났던 소비와 축적의 균형, "일정한 기간 중공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그 발전을 조절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힘을 집중하여 소비의 장성을 축적의 장성에 따라 세우는"¹²⁾ 균형 전략을 포기하고 '증산과 절약'의 내핍적 자립과 외연 성장을

선택한 것이었다. 그것은 결국 '균형적 다각적 자립 발전'보다도 불균형에 의한 속도와 체제 안정의 선택이었던 것이다.

천리마의 자력갱생과 그 정치

생산 정상화를 위한 노동의 총동원식 자력갱생

천리마의 자립은 소비에 대한 통제이자 자급자족의 강제를 통한 내부 예비의 '대약진'식 총동원¹³⁾이다. 대약진이 '두 다리로 걷기'식 자립을 통해 전통 부문에서 자급자족 체제를 꾸릴 것을 추진했듯이, 북한에서도 지방 공업이나 개별 가정의 난방, 전기 등을 중소형 발전소의 건설을 통해 해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식량도 도별 자급체제로 되어 있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알려진 사실이다.

이같은 자력갱생은 당연히 남아도는 노동

12) "일정한 기간 중공업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그 발전을 조절하면서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힘을 집중해야 소비의 장성을 축적의 장성에 따라 세우는...혁명적 경제 전략은 기본 건설 투자를 대폭 줄일 것을 요구한다. 경제 장성 속도를 조절하면서 기본 건설을 대담하게 줄이는 것은 혁명적 경제 전략의 중요한 요구이다."(김상학(1996 2호), "우리 당의 혁명적 경제 전략과 축적과 소비 사이의 균형", 「경제연구」, pp. 9-10)

13) "우리는 위에서 대주면 좋고 안대주어도 자체의 힘으로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불굴의 투쟁을 벌려...내부 예비 동원 사업을 전군중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리며..."(「로동신문」(1998. 2.3),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강행군 앞으로")
"천리마는 자력갱생 창조자의 것이다. 우리의 천리마는 남의 힘을 바라는 것, 남의 덕을 바라고 우만 쳐다보는 자에게 나래를 퍼주지 않으며 있을 자리를 내주지 않는다. 제국주의는 우리에게 한 그람의 강제도 한 와트의 전기도 공짜로 주지 않는다..."(「로동신문」(1998. 4.2), "다시 한번 천리마를 타고 내달리자")
"비료타발, 땅 타발없이 한통의 거름이라도 더 많이 생산하고..."(「로동신문」(1998. 2.1), "강행군의 불길 높이자")
"중소형발전소로...조명과 전기 난방화를 실현하고 많은 직장들은 국가 전기를 쓰지 않고 돌리고 있다"(「로동신문」(1999. 1.21))

력 아니 가동률 40% 경제체제가 목도하는 수 많은 유휴 노동력을 짜고 들어 그들을 생산에 재동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원도 토지 정리 사업의 예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도시의 남아도는 노동력을 '돌격대' 형식으로 꾸려 농촌으로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토지 정리 사업을 하게 하는 방식, 50년대 천리마가 농업 노동력을 도시로 옮겨 산업화를 추구했다면 현재는 도시의 노동력을 농촌 개간 사업에 총동원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도시에서도 떠나버린 노동자들을 조직화하여 생산 정상화 투쟁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 이런 점들이 현 천리마의 총동원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반 '종파' 대중 동원의 정치

“우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나 남을 넘겨다보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이 타닝반으로 그 허물을 벗겨주겠습니다”(「로동신문」(1998. 8.12), “주체의 신념이 강한 자강도 사람들”)

“3일간은 원자력을 바라보는 일부의 허망한 기대를 불살라버리고 철저한 자력갱생만

이 광명의 길이라는 진리의 확인으로 온 나라를 다시금 불러일으킨 힘찬 력사의 순간들…”(「로동신문」(1999. 2.19), “위인열정”)

“지금 일부 사람들이 그 무슨 새 것을 찾는다고 하는데 그것은 말도 되지 않는다. 하늘에서 저절로 돈뭉치가 떨어질 것을 바랄 것이 아니라 전당이 5차 당대회 보고를 다시 학습하고 오직 그 결정대로 해야 한다”(「로동신문」(1998. 3.7), “부흥을 안아올 자력갱생의 마치소리”)

이같은 주장에 따르면, 북한 지도부 내에는 마치 50년대의 중공업 우위 노선에 대한 갈등과 같은 경제 건설 방식상의 이견이 존재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그것은 추측컨대 원조나 차관 등에 의한 경제 건설을 주장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앞서 보았듯이 축적에 대한 소비의 우위를 중심으로 자립을 바라보는 주장이라 하겠다. 제2천리마운동은 이같은 이견을 50년대 천리마운동이 그러했듯이, 또한 당시와 마찬가지로의 방식으로 대중 동원을 통해 해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내비치는 것이라 하겠다. 사실 이런 이견은 주체사상 자체의 해석에도 내재되어온 것이라는 점¹⁴⁾이 전해지고 있어서 유일사상체계의 후계자,

14) 한호석(1998. 7), “황장업류의 주체철학 해석에 대한 북(조선) 내부의 비판”, 「통일논의」 22호, 미주평화통일연구소.

김정일의 권력 장악에 모종의 저항이 있었음을 엿보게 한다. 따라서 50년대 천리마의 반 '보수주의'와 빨치산의 권력 장악 과정의 원 역사를 재현하는 김정일식 정치 과정이 뒷받침될 때에만 제2천리마는 소비 통제와 체제 안정의 효과적 버팀목을 얻게 될 것이다. 이는 제2천리마운동이 의도하는 또 다른 정치적 의도일 것이다.

천리마식 게임과 7차당대회를 향한 계산된 행보

손해볼 것 없는 외연 성장의 단기전

김정일체제의 제2천리마 대진군운동은 외연적 성장 전략의 함의를 띠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자본의 투자와 기술 혁신에 의한 생산성 향상 운동이라기 보다는 노동의 투입량을 늘리는 데 따른 산출량의 강화를 목표로

로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생산을 정상화하자"라는 북한의 구호에서 드러나듯이, 그것은 노동 과잉 상황 아니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원자재와 자본 부족 현상에서 빚어지는 유희 노동을 자본화함으로써 생산의 과거 수준을 회복하자는 운동인 것이다.

따라서 이같은 운동은 대약진 운동에서 드러나듯이 그 본성상 불균형 성장과 그리고 제품의 질 저하를 도외시하는 양적 생산 중심 체제로 귀결되기 쉽다는 약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운동이 한시적으로는 생산력 증대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음은 사실이다. 특히 강원도 토지 정리 사업에서 보듯이 도시의 유희 노동력을 동원하여 강원도의 폐기밭과 같은 유희 토지를 국유화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것은 농업 생산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 분명하다.

〈표〉 50년대 경로와 90년대의 비교

연도	사업 내용	비고
1954~56	전후복구 3개년 계획	제1 천리마운동 1994~97년 제3 고난의 행군 1997년 황장업 망명 1998년 사회주의 강행군 1998년 최고인민회의의 선거와 개헌 1999~ 제2천리마 운동 ? ~ 제7차 당대회
1956	'8월 종파사건'	
1956. 12	강선제강소 현지 지도 - 천리마운동의 시작	
1958	지방인민회의의 대의원선거, 당증 교환 사업	
1959. 3	천리마작업반운동의 시작	
1960. 2	청산리 방법 제시	
1961. 9	제4차 당대회	

‘제2고난의 행군 - 천리마운동 - 제4차 당대회’ 라는 원 역사의 재현과 7차 당대회

50년대, 전후 복구기의 제2고난의 행군¹⁵⁾을 뒤이은 천리마운동은 경제 건설의 성과를 바탕으로 빨치산 출신의 핵심 장악, 1958년 지방인민회의 대의원의 빨치산 계열로의 교체, 1958년 당중 교환 사업, 1961년 제4차 당대회에서의 당 쇄신(북한은 이 4차대회를 승리자의 대회라고 부르고 있음)이라는 정치적 경로를 가능하게 해주었다.

이제 제3 고난의 행군의 마감을 선언한 김정일이 제2천리마를 다그치고 있다면, 그 정치적 행보가 승리자의 대회 즉 7차당대회를 향해 가고 있다면 지나친 추측일까? 단기적이지만 천리마의 경제적 성과를 기반으로 선군혁명령도와 제2천리마 영웅의 발굴을 통해 정권 기관의 안정적 재편과 김정일체제의 리더십을 확보한다면,¹⁶⁾ 김정일식 승리자의 대회로서의 7차당대회는 그리 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 가지 문제는 김정일이 후계자 시절, 주로 속도의 강조를 통한 일상화(routinization)의 타파를 도모했다는 데 있다. 이같은 돌파의 멘탈리티는 김일성이라는 카리스마적 균형자의 존재를 전제한 것이었다고 할 때,¹⁷⁾ 그런 균형자가 사라진 지금, 나아가 그 자신이 균형자로 서야 할 때, 그것도 그런 돌파를 효과적으로 수행해줄 후계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가 주도하는 첫 사업은 50년대의 원 역사처럼 쉽게 재현될 수 있을까? 자칫 후계자 시절의 돌파 멘탈리티를 강조한다면 그것은 중국의 대중 운동이 보인 주관주의의 전철을 밟는 것이 될 것이다. 천리마가 북한체제 동학의 주 관심사로 되는 이유는 여기에도 있는 것이다. **完**

15) 「로동신문」(1998. 6.25), “위대한 장군님께서 훗날 ‘제2의 고난의 행군기’ 였다고 말씀하신 그 때 강선의 로동 계급을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동신문」(1997. 1.26), “1950년대 중엽에 진행되었던 ‘제2 고난의 행군’”

16) 「로동신문」(1998. 6.19), “선군혁명령도의 빛나는 역사”
“장구한 혁명 령도사는 군대를 먼저 창건하시고 그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로 이끌어오신...선군혁명령도의 빛나는 력사이다.”

17) 서동만(1998), “현 북한의 체제 운영에 관하여 - 김정일의 경제지 도와 관련하여”, 참여사회연구소 워크숍 발제문, p. 9.